

## 우리 집의 원폭체험기

야스이 사치코 (安井 幸子 당시 6세)

원폭중심지에서 900미터, 메자마시마치 집 앞에서 피폭. 열선. 방사능. 폭풍과 공포. 고통 속에서 네 명의 형제를 모두 잃었다. 부모님도 그 후에 잇달아 사망, 혼자 살아남음.

### 너무나도 큰 불행 후의 종전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에 인류사상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50년 세월이 지났어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피폭 당시의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그 피해가 육체의 괴로움은 물론이고, 순식간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생명을 빼앗고 무너진 생활의 비참함, 도시의 파멸, 그리고 지금도 아직 마음속 깊이 그 공포가 남아 있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가이다.

이 원폭에 의해 나가사키가 받은 참화는, 인류가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전 인류에 남긴 교훈이 아닌가. 과거에 남긴 교훈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핵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을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이 생각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여름의 태양이 내리쬐는 그날 아침, 공습경보가 해제되어서 메자마시마치의 집으로 돌아와 이웃 아이들과 함께 소꿉장난하려고 동네에서 돛자리를 펴고 준비하고 있었다. 공습이 없는 잠깐의 아이들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제일 큰 애가 엄마역이 되었고 평온한 시간이 흘렀다. 그때, 비행기의 폭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엄마역인 언니가 적기가 왔다고 외치고 외쳤다. 설마 그 비행기가 B29 인지도 모르고, 평소의 연습하는 기분으로 우리는 포개지듯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 순간에 생긴 일이었다. 이상한 섬광이 빛나고 그 섬광은 태양을 몇 개나 합친 것 같았고, 굉장한 폭풍이 내습. 울려 퍼지는 굉음, 순간 몸은 붕 뜬 것 같았지만, 눈앞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순식간에 우리는 생매장되었다. 깨진 기왓장 밑에 깔려서 숨을 쉬니 마치 호스로 물을 넣는 것처럼 입으로 코로 흠이 들어왔다. 그 와중에 말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엄마가 구하러 올 때까지 참자!”라는 대화가 푹푹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 순간에 숨을 멈추고 흠을 들이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때 벌써 불은 가까이 타들어 왔다. 터질듯한 두통, 엄마는 나의 몸을 흔들면서 “다른 애들도 여기에 있었니?”라고 물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며 곁에 있던 숙부는 다른 친구들을 구조하는데 몰두했다. 네 명의 친구들도 구출되었고 나는 울면서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서둘러 근처의 산 위로 피난했다. 옆으로

엿혀 온 네 명의 친구는 이미 입안에 흙을 가득 머금고 모두 숨져 있었다. 그때 눈앞에 보인 것은 타는 집들의 불꽃과 파멸된 거리의 모습. 여섯 살인 내가 산에서 내가 살던 거리의 전경을 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가사키는 원폭 지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나가사키 비극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태양 아래서 조금 전까지 살고 있던 나가사키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은 무너진 것이다.

산으로 피난 온 우리 가족 앞에 잇달아 아픈 몸을 지탱하면서 힘들게 도착하는 사람. 열상(화상)을 입어 피부가 벗겨진 채로 피난 온 사람들, 탈출해 오는 부상자들로 산에서의 두려움은 격렬해졌다. 물을 달라고 외치는 소리.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황야를 헤매며, 숨이 끊어질 듯이 땅이며 연못에 쓰러져 가는 사람들.

나는 그저 공포에 떨며 피난해 온 산 둔덕에서 처음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남인 열네 살의 오빠는 오른쪽 어깨 절반에 열상을 입었고, 차남인 열 살의 오빠는 어둑해졌을 때, 근처의 산림에서 놀라서 정신없이 뛰어 내려와 우리와 산에서 합류하였다. 작은 오빠는 그때 대량의 방사능을 맞은 것을 모르고 살아남은 기쁨을 큰오빠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동생은 무너진 집의 기왓장 밑에 깔려서 뒷머리를 큰 목재의 토막에 찢려서 즉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여동생도 그때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나가사키의 거리는 불바다로 변해있었다. 그때 갑자기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보고 근처로 피난 온 사람 중에는 미군이 기름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소란을 피웠다. 기름은 아니었지만, 빗방울이 묻은 부분은 검은 반점 모양이 남았다. 이때 방사성 물질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처 연못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며 그 물을 마시고 있었다. 화상으로 상처입은 사람들의 몸은, 그때는 오직 물만 찾았다.

아버지는 직장 사람의 병문안으로 글로버 정원 근처로 나가고 집에 없었다. 가족의 안부를 걱정하여, 거리의 참상에 놀라 산을 넘어 찾아 헤매다가 만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주위의 산림이나 밭에서는 연이어 숨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였다. 괜찮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드디어 밤이 되어 근처의 국제묘지로 피난장소를 바꾸었다. 그 묘지에는 이미 피난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암흑 속에서 오로지 물만 찾는 사람, 그리고 신음이 이어진다. 아무도 무엇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정신적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처럼, 말없이 그 상황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불안과 공포는 한층 심해졌다. 평소에 제일 건강했던 작은 오빠는 그때 벌써 구토가 시작되었고, 큰 오빠는 열상의 아픔과 다리의 상처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식욕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뜬눈으로 이상한 몸 상태를 느끼며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8 월 10 일,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부모님은 즉사한 남동생의 시신을 근처의 묘지에 매장하기로 하였다. 입고 있던 옷 한 벌로 얼굴만 가려서 친척 애들과 같이

서둘러 매장하였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가슴에 열싸안고 살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며, 그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었다. 상공에서는 미군의 정찰기가 순회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아이 넷을 데리고 밤늦게, 신발 대신으로 천을 감고, 4 킬로 떨어진 미치노오역까지, 시마바라로 피난하기 위해 찾아 떠난 것은, 8월 10일 저녁이었다. 구조열차에는 사람들이 쇠도했다. 겨우 지옥과 같은 곳을 탈출했지만, 불탄 자리에는 까맣게 탄 시체가 텅굴고, 탄 별판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여동생은 엄마의 등에, 큰 오빠는 아버지의 등에 업히고, 작은 오빠는 심한 구토를 견디면서 오로지 걷기만 하며, 미치노오역에 도착한 것은 8월 11일의 날이 밝을 무렵이었다. 역 주변에는 피난 온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중에는 벌써 숨진 사람, 두 손을 벌리고 살려 달라고 물을 달라는 비명이 계속되었다. 너무도 심한 피로움에 죽여 달라면서 사는 것보다 죽음을 바라는 비통한 모습이었다. 피난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과는 전혀 만나지 못했다.

시마바라역에 도착했을 때는 작은 오빠의 상태가 나빠져서 근처의 병원으로 실려갔다. 오빠와 여동생과 나는 역에서 5 킬로 정도 떨어진 운젠타케의 북쪽 산기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친척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입고, 입을 만한 것도 없는 우리 가족에게 사람들은 아주 인심 좋게 깊은 정을 나눠 주었다. 「감잎을 달여서 먹으면 좋다」 던가 「꽃채소가 좋으니까」 라고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신경을 써 주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토며 권태가 계속되었다. 산의 자연적이며 깨끗한 공기 속에서 건강을 되찾겠다는 부모님의 생각도, 지금까지의 생활경험을 토대로 대응하고 있었을 뿐, 피폭이라는 인류 최초의 경험이었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대응하지 못하고,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사이에, 부모님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흘렀다. 또 이런 증상이 원폭방사능의 침해를 받은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 필사적으로 견디고 있던 작은 오빠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고열이 계속되어,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부모님과 내가 병원을 오가는 도중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작은 오빠는 사망했다. 8월 24일의 밤이었다. 죽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르며 뒷일을 부탁한다며 숨을 거두었다. 나는 너무도 심한 슬픔 때문에 작별의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앓은 환자 위에 오빠를 눕혀서 30 분 정도 떨어진 친척집으로 옮겼다. 어두운 시골 길을 터벅터벅 걷기 시작하였고 부모님도 삼촌 부부도 나도 말 없는 행렬이었고 그 모습은 비애 그 자체였다. 그로부터 2,3 일 후, 큰 오빠의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말에 태워서 산에서 내려갔다. 고열과 열상에 아파하던 오빠는 그래도 힘을 내어 산에서 내려갈 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탄다며 농담까지 했다. 작은 오빠의 죽음은

알리지 않았다. 이날이 산에서의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팔의 열상이 나빠져서 검은 갈색으로 부어올라 심한 아픔을 호소하고 있었다. “팔의 아픔만 없어도…….”라는 말에 부모님은 어떻게 해 줄 수도 없이,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고열이 계속 나서 9월 1일에 오빠는 사망했다. 사망 직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울지 마요, 나는 특공대가 된 셈 치고 죽으니까 어서 눈물을 닦고 『우미유카바』 군가를 불러서 저를 보내 줘요.”라고 했다. 아들 둘을 잃은 나머지, 장남과의 이별에 아버지도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 힘내라고 하자 오빠는 “눈물 닦고 빨리 노래 불러 줘요.”라고 했다.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듣고 아버지가 그 노래를 불렀을 때, 큰 오빠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부모님의 원한의 울음소리,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세 아들을 잃어버렸다. 여섯 살의 나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슬픔이었다. 9월 4일에는 나를 기왓장 밑에서 구해 준 삼촌이 입안과 인두의 아픔이 시작되어 고열과 탈모의 증상으로 괴로워하다가 바늘 천 개로 찌시는 것 같은 아픔이라면서 숨졌다. 숙모도 열상에 괴로워하다가 9월 6일에 숨졌다.

전쟁 중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배불리 먹을 식량도 없이, 가까운 산에서 캔 나물을 자주 먹었다. 밥 먹자는 엄마의 한마디에 애들은 밥상에 둘러앉는다. 때로는 호박이나 고구마가 들어 있는 죽이었다. 그것도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더 달라고 그릇을 내밀면 오빠는 “철 좀 들어라. 엄마 몫이 없잖아.”라고 주의를 줬다. 엄마는 배고플 거라며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었다. 상황은 날마다 긴박해졌다.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불안정한 날이며칠이고 계속된 적도 있었다. 그런 중에서도 가족들이 항상 서로 손을 잡고 긴장감으로, 내일도 건강하게 노력하는 가정이었다. 그것은 또한 전쟁중과 전쟁 후의 가난에 견디는 생활의 의지가 되었다. 그 가족이 모두 붕괴의 길에 이르러, 정신적 피해와 상층작용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가족해체가 진행되었다.

두 오빠가 사망한 직후부터 나도 열, 탈모, 구강의 출혈이 이어지고, 식욕도 아주 없어지고, 게다가 두 손과 두 발에 종기가 많이 보이고 열과 같은 고름이 생겨, 그 상처에 파리가 몰려들어 알을 낳아서 심한 고통이 다가왔다. 바를 약도 없고 가제, 붕대, 소독약도 없어서 나빠질 뿐이었다. 뭐라도 먹을 것을 찾으려고 아버지가 근처의 농가를 찾아서 겨우 국수를 한 묶음 얻어와서는 산에서 따온 버섯을 넣어서 엄마가 만들어준 국수는 나의 목숨을 이어준 소중한 것이었다.

형제들과 이별하고 산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추워진 가을이 되어 있었다. 몇 개월 동안 산에서의 생활은 슬픔과 외로움의 날들이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들어도 이미 그때는 불행이 너무도 커서, 재건의 길을 걷기 시작하려고 해도 쉽게 목표를 찾지 못하고, 정신적 타격도 커서 부모님은 고심했고, 어렸지만 그런 부모의 얼굴을 보고 불안에 싸여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지,

살려 주고 싶다는 필사의 생각으로 피해은 시마바라의 땅이었다. 자연의 풍부함도, 깨끗한 물도 그것들의 맛조차 보지 못한 채, 죽음과 파괴의 세계로 쫓겨, 피폭 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형제며 친척 스물세 명의 목숨을 빼앗겼다.

살아남은 나와 여동생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기대어, 모든 것의 파괴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중에서, 살아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삶과 희망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했다. 나가사키에 돌아온 것은 1946년 4월, 무참한 광경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피폭 후의 생활은 초라함 그 자체였다. 불탄 자리에서 주워 모은 못이랑 함석판, 목재 등으로 집이라기보다는 오두막에 가까웠다. 식량 사정은 극도로 가난해서 고구마줄기랑 벌판의 풀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배고픔을 참았다. 빈털터리가 된 피폭자에게는 물물교환할 의류도 없고, 비가 오는 날이면 여기저기에서 빗물이 새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오두막이 날아가지 않을까 하고 불안한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다. 제대로 된 집을 지은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였다.

피폭 후 얼마 지나서 앓아서부터 아프기 시작한 여동생은 1954년 4월에 방사능 장애로 인한 백혈병으로 쓰러져 6월에 사망했다. 아버지도 전후의 생활복원을 위해 무리하게 노력을 거듭하다가 1961년 9월에 간장장애로 사망했다. 1962년에 나는 갑상선암으로 쓰러져 두 번의 수술을 거쳐 위험에서 벗어났다. 살아남았지만, 무엇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자신의 장애에 어떤 가능성을 찾아내면 좋을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죽음과 파멸의 세계와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불안, 자신들이 지금부터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동안의 청춘시절은 불안과 고민, 슬픔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엄마도 전쟁 후 40년, 원폭증에 의한 백혈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나 혼자 살아남았을 때,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것은 원폭이 비참함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고 그 지속성의 크기와 공포라고 하는 점이다. 그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재건할 생활기반은 너무나도 약해서, 전후의 이런저런 과정 중에서 몇 번이고 무너졌다. 살아남은 나는 그런 혹독한 시련 끝에 몇십 번이고 찾아온 불안한 요인 중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의의를 구축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희생자의 무념을 생각할 때, 하나의 사명감이 태어났다. 몇 번의 시련을 이겨냄과 함께 획득한, 인류 중에서 지극히 소수인 원폭피폭자로서 핵무기를 부정하며, 인류의 평화적인 생존에 이바지한다. 거기에서 자신이 가진 신념을 확고하게 찾을 수 있었다.

살고 싶어도 살아남지 못한 많은 사람의 무념을 생각할 때, 나는 한마디의 말을 생각해 낸다. 「하늘에 빌기보다 땅에 엎드려 진심 어린 외침을 받아들인다.」 죽어간 많은 사람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했는지. 50년 세월을 지내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장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로 말미암아 알고 얻은 인간의 궁극적인 괴로움이며 사랑을 생각할 때, 구사일생으로

생을 얻은 나의 사명은 원폭의 교훈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해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난날을 생각할 때, 오늘의 평온하고 정상적인 날들이 당연하게 찾아온 이유가 없고, 거기에는 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고, 그 위에 생긴 것이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자비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참된 인간성을 발휘하여, 세계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학습, 공헌하며 전해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5년